방탄소년단, '빌보드 어워즈' 2관왕

방탄소년단(사진)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 (Billboard Music Awards)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라 K팝 새 역사를 썼다.

방탄소년단은 1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에서 '톱 듀오/그룹' 과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톱 듀오/그룹' 상에 호명된 방탄소년단 RM은 "땡큐 아미(팬클럽)" 라며 "대단한 아티스트들과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한 작고 사소한 것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린 여전히 6년 전 그 소년들" 이라며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것을 두려워하며 같은 생각을 한다. 계속해서 함께 최고의 꿈을 꿉시다." 라고 말했다.

주요 부문으로 꼽히는 '톱 듀오/그룹' 상을 한국 가수가 받기는 최초다. 이 부문에서 방탄소년단은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 파이브, 패닉 앳 더 디스코, 댄&셰이 등 세계적인 그룹과 경쟁했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국내 그룹인 엑소, 갓세븐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루이 톰린슨과 후보로 경쟁했지만, 방탄소년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부문이어서 수상이 예상됐다.

드레이크, 빌보드 뮤직 어워즈 12관왕 등극

캐나다 출신 스타 래퍼 드레이크(32·사진)가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BMA)' 의 주인공이 됐다.

드레이크는 1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톱 아티스트' 를 비롯, 1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그는 지금까지 이 시상식에서 총 27개의 트로피를 받으며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23개)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드레이크는 "나를 피아노의 세계로 인도한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고 말했다. 드레이크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시상식 전 올해 최다인 21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카디 B는 미국 팝밴드 '머룬5' 와 함께 부른 '걸스 라이크 유' 로 '톱 핫 100 송' 을 공동수상한 것을 비롯, '톱랩 여성 아티스트' 등 6개 부문상을 받았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톱 여성 아티스트' , '빌보드 차트 어치브먼트 어워드' 를 받았고, 신인상에 해당하는 '톱 뉴 아티스트' 상은 래퍼 주스 월드가 받았다. 머라이어 캐리는 '빌보드 아이콘 어워드' 를 받으며 팬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나훈아, 새 앨범 공개 "가슴으로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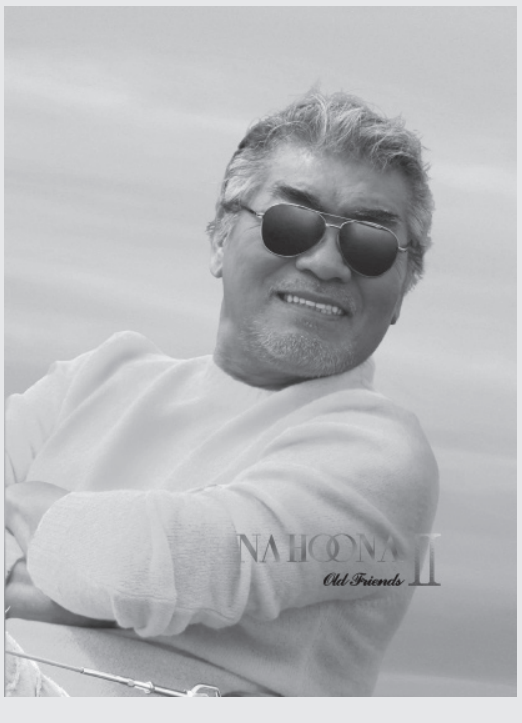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3일 새 앨범 '벗 2' 를 공개했다. 이번 신보는 지난 2017년 11년 만에 컴백하면서 낸 '드림 어게인' (Dream Again) 이후 2년 만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벗 2' 는 14년 전 '벗 1' 에 이은 앨범으로 작곡가 18명과 작사가 10명 등 28명이 한 곡씩 참여했으며, 단일 앨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들을 포함해 뮤지션까지 모두 204명이 작업에 참여한 특별한 앨범이다.

나훈아는 소속사를 통해 "추억은 참 좋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다.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모두가 아름답기만 하다." 라고 앨범 발매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적게는 40년 또는 50년 이상의 세월 묻은 벗들이 별 것 아닌 추억거리를 꺼내놓고 웃음꽃을 안주 삼아 한잔 두잔 거나하게 취해 '또 해볼까' 하며 마음을 담아 만든 곡들을 저는 가슴으로 한 곡 한 곡 정성으로 노래했다." 고 덧붙였다.

나훈아는 신보 발매 후 오는 17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전국 투어에 돌입한다.



▲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3일 새 앨범 '벗 2'를 공개했다.